

음성 가이드 : 온천 신사

몇 분 정도 더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마을 중심에 도착합니다. 오른쪽에 돌도리이가 있는 곳에서 멈추면 그곳이 온천 신사입니다.

신불습합 사상으로 701년에 건립된 이 신사(일명 시멘구)는 신도와 관련된 4신의 총본사이며, 이 4신은 시마바라반도와 온천의 수호신으로서 반도 전역에 모셔져 있습니다.

시멘구는 온젠에서 종교적 갈등이 일어난 시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. 19세기 후반, 메이지 신정부는 신불분리 정책을 내세워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신불습합의 전통을 지우려고 했습니다. 시멘구와 만묘지는 강제로 분리되게 되었고, ‘외국에서 들어온’ 불교의 영향으로 보이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새롭게 ‘온젠 쓰쿠시쿠니타마 신사(후에 현재의 온천 신사가 됨)’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

제2차 세계대전후 이 원래의 이름 ‘시멘구’가 부활하게 되었고, 지역 주민들은 ‘오시멘상(사면씨)’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종교적 분리는 해소되지 않았고, 오늘날 일본에서 신도와 불교는 완전히 다른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